

'마음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실천'으로  
사회참여하는 환경지도자 양성

주체 :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후원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문제는 우리들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삶의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풀꽃세상은 개개인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실천이 있어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천이 수반된 조용한 마음의 운동’을 풀꽃운동의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풀꽃운동의 다양한 실천태를 통해 만난 많은 시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열망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시키고자 합니다.

함께 배우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애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일상속의 환경지도자’로서 기능하게 합니다.

## 진행경과

일시	교육내용	인원	교육장소	비고
8월 23일	생명공학에 담긴 폭력과 환경파괴 지속가능한 자원과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행동	26명	서울여성플라자	이론
8월 30일	새만금 현장 활동가 강의	40명	부안둔지공소	현장
8월 31일	새만금갯벌공사현장보기 살아있는 갯벌 체험	40명	새만금1호방조제 부안마포갯벌	현장
9월 20일	농사꾼의 “논” 이야기	32명	창녕 공생논두레농장	현장
9월 21일	발전개념의 기원과 중앙집중의 비생명성	32명	영남대학교	현장
10월 4일	기자가 바라본 환경파괴 현장	18명	풀꽃세상	이론
10월 18일	생태주의와 인드라마	37명	지리산실상사	현장
10월 19일	만다라 명상 지리산 실상사의 대안 프로그램 종합평가	37명	지리산실상사	현장

## 진행내용

8월23일(토)

박병상 “생명공학에 담긴 폭력과 환경 파괴”  
환경 전반에 걸쳐 있는 근본적인 질문과  
생명공학에 담긴 비윤리성과 왜곡된 상업성을 이야기함

이필렬 “지속가능한 자원과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새만금 풍력발전 대안”  
기존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강의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시간 : 5시간 실내강의





8월30일(토)-31일(일)

허정균 “새만금 이야기”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파괴의 실상을 부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진솔하고 진정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새만금 이야기  
현재 부안에서 일고 있는 원전개발 반대를 체험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하기  
갯벌을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 모두의 문제인 새만금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의 현장강의

장소 : 새만금 갯벌

시간 : 1박 2일 현장강의





우리는 신이 나서 갯벌로 달려갔어요. 열넛풀님 고무신에 복어와 소라도 잡아 넣어줬구요.



온갖 생명체가 넘쳐나는 갯벌에서 어른폴씨들도, 어린폴씨들 신기하듯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갯벌이 신기했어요.



정월이는 바닷물에 들어가 나올 줄 몰라 우리 정말 칼 붙지요?



정월이 어머님이 애를 좀 먹었어요.



산 정상에 오르니 새만금갯벌과 계화도 관측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날이 흐려서 사진에도 부영게 나왔군요.



오르는 동안 조금 힘이 들었지만 봉수대에 오르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봉수대에 오른 폴씨님들은 신이 나서 호뭇해했지만 봉수대에 오르지 못한 폴씨님들은 위에 있는 분들을 아주 부러운(?) 듯 쳐다보곤 하셨지요.

산을 내려와 우리들은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9월20일(토)-21일(일)

천규석 “농사꾼의 "논" 이야기”

지역자립과 자치의 가치를 '공생농두레'(대구한살림)라는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는 천규석씨의 공생농두레 활동을 하면서 쉬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생각하는 우리 논과, 쌀과 생명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도시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강의 경남 창녕의 천규석씨의 농장에서 논과 함께하는 진행하는 현장강의

김종철 “발전개념의 기원과 중앙집중의 비생명성”

1991년 11-12월호 창간호를 시작으로 12년째 우리 시대에 소중한 울림을 주고 있는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씨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녹색평론>을 발행하셨던 1991년 11월,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2003년 9월 우리가 공유하는 '희망'에 대한 강의

시간 : 1박 2일 현장강의

장소 : 경남 창녕, 영남대학교



방과 조그만 마루 그리고 부엌 구석구석에서 귀기울이며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갑니다. 소중한 지켜가야 할 것을 위해서...





둘째날 아침 논을 보면서 천규석 선생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흙탕물이지만 **하늘을 닮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독도 자연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동요풀님의 소개로 김종철선생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거운 주제를 진중하게 때론 유모로 좌중을 들쭉이게도 합니다.  
가난하게 살지고 힘있게 이야기 하십니다.

10월4일(토)

“기자가 바라본 환경파괴 현장”

김경애(한겨레 사회부기자)

예진수(문화일보 사회부기자)

10년 전 “이것만은 지키자”란 컬럼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를 한 기획기사의  
기자가 다시 10년 후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 실내강의와  
정부의 정책의 변화와 그 문제성,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환경인식의  
편향성을 이야기 한다.

시간 : 4시간 실내강의

장소 : 풀꽃세상



10월18일(토)-19(일)

“생태주의와 인드라마”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왜 인간은 지난 50년간 평화를 외치고, 지키자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왔지만 지금의 세상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평화롭지 못한가? 그럼 대안은 없는가? 그 대안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해 보는 시간

시간 : 1박 2일(현장강의)

장소 : 지리산 실상사





## 종합 사업평가

처음 풀꽃세상이 계획한 것은 좀 더 많은 강의와 사업계획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결과물들을 도출 하는 계획으로 되 있었다. 지원 사업비가 나오고 시민사회단체가 늘 겪듯이 현실과 지원비의 격차는 컸다.

일단 기존에 계획했던 강의 일정과 강사들의 조정 등 전체사업 계획을 축소하여 조정 하였다.

전체적인 사업의 결과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신선하고 좋았다는 전반적인 평가를 했다.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기대에 모자랐던 부분이었다.

종합평가회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일반인들의 접근도 쉬웠고 현장 중심으로 좋았다.

현장에서 오래 활동해 온 분들의 생각과 현실을 볼 느끼게 해주었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의견으로는 심화과정이라는 것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과 지도자 양성이라는 과정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강의를 부분별로 환경교육과정과 교육코스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중심의 강의와 현장을 보고 접할 수 있는 또 풀꽃세상이 지향하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실천” 에 가깝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주었다.

다른 의견은 전체적으로 장거리에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교육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유 있는 시간 배정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주었고, 강의에 대한 준비자료가 너무 부족했다는 책망도 했다.

참여유도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인(남녀노소)도 대상으로 했으면서 가족과 같이 온 수강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강의 진행을 방해 하진 않게 어린아이들을 맡는 탁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마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일반인들의 의식변화, 실천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하는 반면 환경지도자라는 실체에 미칠까 하는 의구심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과도 같을 것이다. 이 교육과정을 통한 차후 활동계획을 잡고 있는 참가자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을 키우게 되는 것은 뚜렷한 사업의 성과 일 것이다.

가장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지만 또 강력한 실천의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의 변화이고 그것이 동반된 실천일 것이다.

처음 교육사업을 시작한 햇병아리로서 이번 지원 사업은 우리 단체에게도 큰 교육이었다.

타 단체와의 비교 분석과 교류, 정확한 계획과 수행은 과제로 남겠지만 앞으로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수료자들의 추후 활동계획

참가자 : 조민웅

### □ 환경 지도자과정을 통한 내면의 느낌들

풀꽃세상의 정회원이 되고 나서 환경지도자과정은 나의 공식적인 첫 행사로 다가왔다. 박병상선생님을 통해 배운 ‘생명공학에 담긴 폭력과 환경파괴’ 강좌와 이필렬선생님의 ‘지속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행동’에서 그간 마스크의 영향을 통해 생명공학의 발전이 장수와 난치병치료 효과 등 순기능적인 요소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험과 결과에서 나오는 반생명적인 요소들로 인해 인류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순기능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실험을 통해 얻는 것이란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차단된 시점에서 무관심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필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원자력, 화석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유럽, 일본 등에서 한발 앞서 시작한 지속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공기업의 기업이기주의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다음 과정인 ‘새만금 이야기’ 과정 중 알게 된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운동과 내용상 연계되어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참석한 ‘새만금 이야기’는 새만금사업의 환경파괴 비경제성을 다룬 ‘새만금 새만금’의 저자인 허정균선생님을 통해 시화호, 화옹호의 상황과 비교하여 간척사업의 비생명성, 논을 메워 공장을 만들고, 다시 갯벌을 메워 논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었다. 새만금 갯벌을 직접 체험해보고 죽어가는 갯벌을 보니 바다가 고향인 나로선 내고향 앞바다가 썩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폭력성에 섬뜩했으며, 방조제 바깥의 아직 건강한 갯벌을 보며 간척사업이 하루빨리 중단하여 자연이 스스로를 정화하여 나가 새만금이 건강한 갯벌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게 되었다. 새만금방조제를 둘러보며, “환경 친화적인 간척” 사업을 하겠다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광고를 보며, “아름다운 살인”이라는 말이 떠오르며, 환경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할 일 많음을 느끼게 했다.

경남 창녕에서 진행된 천규석선생님의 ‘농사꾼의 “논” 이야기’에서는 논역사와 우리농업의 현주소 및 전망, 유기환경 농업으로의 전화 필요성을 역설하시



며,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다.

마지막과정으로 지리산 실상사의 도법스님의 ‘생태주의와 인드라마’ 강의에서 인간들의 그물코처럼 엮어진 세상 속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시며, 다른이의 어려움을 내 것이라 여기고 감싸달라던 말씀에서도 느꼈고, 환경 지도자과정 이 끝나고도 한참 지난 이때까지 내가 과연 얼마나 그리했나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나, 이러한 고뇌 속에서 조금씩 내가 나아가고 이런 노력 속에서 내가 속한 사회도 달라지겠지 하는 막연하지만 절실한 기대를 해본다.

### □ 환경 지도자과정을 통해 변화된 생각과 실행계획

직장인인 나로선 환경 지도자과정을 통해 느낀 점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주말이면 한 번씩 산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산행은 내가 다녀가는 산. 즉, 발로 밟고 지나가는 산이었다면, 관악산의 여기저기 널려있는 산악회의 산행안내지와 과일껍질 같은 산의 토양과 야생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쓰레기라도 치워가며 환경 친화적인 산행을 계획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먼저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는 유기농산물의 이용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풀꽃세상과 한 살림 등을 통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유기환경농업을 지키며 실천하는 우리 농촌의 유기농업의 확대에 일조하고 싶어졌다.

세 번째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만금 사업과 핵폐기장 건설사업, 유기농산물의 이용, 천성산 살리기 등. 주위사람들과의 대화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점차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내가 환경에 대한 서적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많이 배우고, 환경모임에 적극 참석하여 정보수집에도 힘쓸 예정이다.

## 참가자 : 전정숙

실제로 가서 보고 듣고 몸으로 느낄 기회가 많아 좋았습니다.

첫번째 과정에서는 막연히 나쁘다고 생각했던 생명공학과 환경과괴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말하는 생명공학이 실제로는 현실성이 없고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경시, 특히 여성의 몸이 도구화 된다는 것이 여성으로써 왜 그런걸 진작 몰랐는지 화가 나고 살 떨렸습니다.

이필렬 교수님의 지속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 개발, 평소 보아오던 원자력 광고에는 항상 어린애들이 나와 '안전해요' 하죠. '그래도 나빠. 근데 왜 나쁘다는 거지. 다른 수가 있나.' 근데 플루토늄 0.1그램이면 온 가족이 죽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에 쓰이는 폐기물을 크게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가 있는데 저 준위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던 장갑이나 볼트 같은 도구인데 200-300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물며 고준위는 반감기가 2만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민족 역사가 몇 천 년이라고 하는데 2만년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우리세대에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자식대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물려줘야 하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대안은 물론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풍력발전 등입니다. 특히 바람이 많은 바다 주변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새만금, 부안에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과정이었습니다. 직접부안에 가서 촛불시위에도 참여하고 조그만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한마음으로 촛불을 키고 시위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충분히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무관심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국가 정책에 화가 났습니다.

허정균 선생님의 진행으로 새만금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만금 공사로 죽어있는 갯벌을 먼저 보고 발을 담귀보고 걸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에 눈물이 팽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살아있는 갯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기어 다니는 풀게, 바지락.. 크고 작은 생명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들을 죽일 권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도 살인이구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귀퉁이에서 새만금 추진 사인을 받는 것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창녕과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창녕에서 천규석 선생님께서 논의 중요성과 역사를 알려주시고 실제 논을 살펴보고 거기에 사는 우렁이와 무럭무럭 자라는 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대구에서 김종철 교수님의 '발전 개념의 기원과 중앙집중의 비생명성'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생겨서 우리에게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TV를 통해 학교를 통해 영화나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끊임 없이 세뇌되

어운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과연 국가가 있어 좋은 게 뭐지. 우린 행복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정부보다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뭉쳐서 자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지리산 실상사에서였습니다. 도법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랑. 어느 한쪽으로 우리끼리 나만 하는 것은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친미 국가만의 평화, 그건 평화가 아니고 기독교나 불교 등 자기네 종교만 강요하는 것 또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거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모로 상처를 받고 쉽다고 하시면서 간디의 경우를 덧붙여 얘기하셨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그 과정을 중요시하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가는 몸부림 하나하나가 의미 있으니 결과에 상처 받지 말고 노력하라는 말씀. 그때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마찰도 '이해', '인내', '관용'으로 극복하라는 말씀 하나같이 다 좋았습니다.

분명히 이 환경 지도자 과정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 바뀐 것은 아니지만 왜 생명공학이 나쁜지, 이제 멈추어야 할 때라는걸 알았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고 생명공학으로(실제 불가능하지만 가정을 든다면) 심장을 길러 내 심장이 붙어서 쓸 수 있는지, 심장만 간다고 다 되는지.. 그러한 경우 사람들의 장기는 전부 퇴행성 질환이라 하나만 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환경 개선, 전체적인 식생활, 꾸준한 운동 등으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한 허망한 생명공학에 기대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에 책임지고 다스려야겠다는 결심했습니다.

이필렬 교수님의 강좌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에너지 절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잠들 때에만 난방을 하고 불필요한 불은 꼭 끄고 물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태양에너지를 사용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부안을 갔다 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만금과 부안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반대 사인도 받고 합니다.

지도자 과정에서 배운 논의 중요성과 먹을 거리의 중요성을 알고 직거래를 더욱 활용하고 당장 논농사를 짓지는 못하지만 주변사람들과 어울려 먹는 채소, 야채는 자급 자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주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늘 귀가에 울리는 도법스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많이 참고 이해하고 당장의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나쁜 짓을 10번했다고 하면 하나씩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 그 밖에.....

박윤희씨는 평소 관심이 많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숲 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 했으며, 현재 그린피스 코리아 지부를 설립 계획 중으로 3월에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김교진씨는 귀농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외 풀꽃세상을 위한모임에서 산행모임 대장으로 활동한다. 현재 여러 문제가 걸린 산행을 통해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의 체험으로 회원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산행을 통해 자연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철호씨는 여러 현장에서 활동을 했었다. 삼보일배의 장정을 함께 했고 그 장정의 만남을 자전거로 가지기도 했다. 지금은 문정현신부님께서 계획 중이고 실행중인 “평화바람” 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평화바람은 2004년 1년을 전국을 순회하며 여러 환경이야기를 문화행사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정희씨는 지리산 실상사 자연의학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여러 자연의학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하여 자연의학을 전파하고 있다. 2004년에 풀꽃세상을위한모임에 자연의학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귀농과 소농에도 자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기존의 의료 시스템만 의존하던 현재를 반성하며, 비판을 하며 실제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대체의학의 전파를 계획 중이다.

## 참가 후기

### 참가자 : 권지현

풀꽃세상 환경 강좌를 마치고...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의 풀씨 '얼떨풀 권지현'

환경단체에서 회원으로 그저 정신 없이 따라 다니다 보면 그저 현장으로 찾아가 뭔가를 하는 것이 좋아서 따라 다닐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익숙해서 다니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가끔은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작년 여름 4주간에 걸친 박병상 교수님의 환경강좌를 기점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풀씨들은 심화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강의가 재미있게 진행되었던 것도 있었지만 현장학습도 수반되기 원했던 간절함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교보 재단의 후원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환경강좌가 다시금 시작되었다.

대방동 여성회관에서 이필렬교수님의 대안에너지에 대한 강좌를 시작으로 도법 스님과 함께하는 지리산실상사 방문으로 강좌를 마치기까지 여름과 늦은 가을을 느끼면서 공부를 진행 할 수 있었다. 책으로만 환경이야기를 접하던 풀씨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단단한 모래에서 질퍽한 빨로 변한 새만금 갯벌을 밟아보는 경험은 가슴 아픈 경험이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곳의 갯벌의 바위에 생명이 있음을 알리며 차오르는 짙푸른 물을 만날 수 있었고, 스물 스물 물 흐르듯 자리를 옮겨가는 소리들도 만날 수 있었다. 동심으로 돌아가 갯벌에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웃은 곳이었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 밖에 없었던 곳이 갯벌 체험이었던 것 같다. 또한 지금 부안지역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기회였다. 보도로만 접해 오던 위도핵 폐기장 건립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 중심에서 힘쓰시는 문규현 신부님을 잠시나마 이 시간을 통해 만나 볼 수 있었다. 삼보일배로 들렀던 곳이 몇 개월 만에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었다. 전북 개발을 하겠다는 미명하에 결국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영남대학교의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의 강의는 웃음꽃이 만연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동육아에서부터 전반적인 인간환경 이야기에 대해 신랄한 해석과 통찰로 긴시간을 길지 않게 이끌어 주셨다. 우포늪에서 봤던 물 안에 하늘도 아름다웠다. 습지라는 곳을 개인적으로 처음 가보는 것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 식물들을 많이 접할 수는 없었다. 개발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갯벌과 습지들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중요한 만큼 땅에 사는 식물도 하늘을 나는 새도 다 똑 같은 생명으로 그들의 생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생명의 숨소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람들의 숨소리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김경애 기자와 문화일보 예진수 기자의 환경 이야기의 경우 풀꽃방에서

단출하게 이루어 졌다. 풀씨로 각각 깨비풀, 살구풀이라는 풀씨 이름을 쓰고 계신 풀꽃 세상의 가족이기에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 되었다.

한겨레 신문에서 환경부에서 꾸준히 일해오고 있는 김경애 기자는 강의 당시 10년 전 신문사에서 실시했던 환경 프로젝트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할 자연 생태계'의 재고찰을 하는 의미의 취재를 하고 있었다. 진동 계곡을 비롯하여, 위도, 새만금, 독일의 갯벌보존지구, 북산한 등 10년 전 둘러보았던 생태계와 새로운 보존의 해석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예진수 기자 역시 환경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주셨다. 끝난 후 앉아서 풀씨들과 긴 시간 토의를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매 시간 뜨겁게 마음을 달구워 준 강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너무나 다들 바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풀씨들을 위해 자리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작년 봄 삼보일배와 지울스님의 단식 등 끊임없는 환경과 관련 된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문제에서 더 큰 문제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어떤 세상이 옳은 세상인지 접근하기 위해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